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간의 관계 규명을 중심으로

Adolescent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Exploring the relations between adolescents' perception and
behavioral attitude toward the elderly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전임강사 김 윤 정
동의대학교 아동·가정환경학과
전임강사 정 선 아

Hanseu University, Dept. Eldery Welfare
Kim, Yun Jeong
Donguei University, Dept. Child and Family Environment
Chung, Shunah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 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adolescents' behavioral attitude and perception toward the elderly relating to the experiences with their grandparents. In addition, the study explored the relations between perception and behavioral attitude toward the elderly. The numbers of sample are 1,477 adolescents who were 5th grade of elementary, 2nd grade of both middle and high school. They answered three different questionnaires relating to perception and behavioral attitude toward the elderly including positive perception, image and perspectives toward the elderly; behavioral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nd biases toward the elderly. Adolescents' relationship with their grandparents was assessed by questioning about present and past experiences of co-living with grandparents, living distance to grandparents, frequencies of visits

and phone calls between grandparents and adolescents, and other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dolescents' behavioral attitude and perception toward the elderly tends to be positive; (2) Adolescents' sex and grades significantly affect the perception and behavioral attitude toward the elderly, (3) The closer to the grandparents adolescents are, the more positive attitude and perception to the elderly; (4) Adolescents' perception better explains their behavioral attitude toward the elderly.

◆ 주요어: 청소년, 노인에 대한 인식, 노인에 대한 행동,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편견

I. 서론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1996).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증가는 예기치 않은 많은 노인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노인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족이 노인을 부양하던 관습이나 의식이 변화하고, 부부와 자녀 중심 가족이 형성되면서 노인과 동거하지 않는 가족구조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쇠퇴와 같은 내적 특성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지위의 약화, 은퇴와 같은 외적 특성은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윤진, 1985). 이처럼 전통적인 노인에 대한 '경노'와 '효'와 같은 가치가 그 힘을 잃어가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화되는 가운데, 부부 중심적 핵가족체제는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차단시켜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여러 세대 중에서도 청소년들과 노인들의 가치관의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양춘, 1984). 청소년들은 부모의 영향력과 보호로부터 독립하려는 태도가 강해지고 권위와 전통에 대한 비판의식이 증가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이전세대의 이념과 가치, 전통적인 사회 문화

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이전 세대와는 다른 시각과 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들의 새로운 시각은 전통을 고수하려는 구세대와의 견해차이로 인해 갈등을 불러일으킨다(성규탁, 1995). 노인세대 역시 자신이 지켜온 전통적인 가치관을 전수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체계의 차이에서 오는 세대차이를 경험한다(윤진, 1985).

이처럼 청소년과 노인은 보편적으로 세대차이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이나,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두 세대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청소년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조부모를 통하여 문화적, 정신적인 연속감과 통합감을 이루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며(Barranti, 1985; Mead, 1974; 백문화, 조병은, 1992에서 재인용), 세대간의 교류와 사회화 과정을 통해 부모세대의 가치를 공유하기도 한다(성규탁, 1995). 청소년기의 정체감 형성은 가족안에서 세대간의 교류를 통해 윗 세대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이나, 노인과의 관계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박경란, 1994)고 볼 수 있다. 노인과 청소년 혹은 젊은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세대간의 접촉 정도나 관계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결

과에 주목하여야 하는 점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태도'라는 용어의 개념화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태도는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및 행동적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선자, 1989)인데, 실제 연구에서는 이 하위 영역들 어느 한 요소만을 측정하여 노인에 대한 태도, 이미지, 또는 인식이라는 주제로 발표되고 있다. 이처럼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태도에 관한 개념상의 문제와 측정방법상의 문제가 있어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소들(인식과 행동)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조부모와의 관계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청소년의 전반적인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조사하고, 둘째,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조부모와의 접촉의 정도와 질(친밀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며, 셋째,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에 대한 태도의 개념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들은 '태도'라는 용어를 개념화하여 이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태도의 정의를 살펴보면 '태도'는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및 행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인 개념(Rosenberg et als, 1960; McKachi & Doyle, 1966; 이선자, 1989 재인용)이다. 태도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노인에 대한 태도를 개념화하여 연구하려는 시도도 있었다(Seefeldt, Jantz, Galper, & Serock, 1977; Weinberger & Milhan, 1975). 그러나 대부분 국내외 연구(Austin, 1985; 김혜경, 1997; 이미정, 1996; 이선자, 1989)들은 노인에 대한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를 혼용하여 태도로 개념화하였으며, 태도의 행동적 요소는 태도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신

귀연, 1995).

또한 태도에 대한 개념적인 혼동은 태도를 이미지, 인식이나 인지로 측정하는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태도를 정서적 요소로 측정하고 있는 '이미지'에 관한 연구(신귀연, 1995)는 주로 노인을 나타내는 반대되는 형용사 쌍들로 이루어진 의미 분별화법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하는 경향이다. 그 대표적인 측정도구들로는 Osgood 등 (1957)의 척도, Sanders 등 (1984)의 척도, Levin (1988)의 척도가 있다(한정란, 2000). 반면, 태도를 인지적 요소로 측정하고 있는 '인식이나 인지'에 관한 연구들은 Kogan(1961)의 Old People(OP) Scale이나, 137개의 진술문으로 이루어진 Tuckman과 Lorge(1953)의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방법 역시 일관된 것은 아니다. 즉,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에서 Tuckman & Lorge(1953)의 척도를 사용(이은미, 1990)하기도 하고,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Sanders 등 (1984)의 척도가 사용(한정란, 2000)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노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소들이 명료화되지 않고 모호하게 혼용되어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나타나는 개념과 측정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 태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게 개념화되고 측정방법 역시 혼용되고 있어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의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노인에 대한 태도가 주로 노인에 대한 인지나 지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은, 노인에 대한 태도가 지식을 근거로 측정되고 있다(Palmore, 1988)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결국 정서적 측면이나 행동적 측면은 결여된 채 부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태도의 개념상의 문제와 측정방법상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태도의 정서적 요소, 인지적 요소, 행동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개념화되고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 요소 중 인지와 이미지는 '노인에 대한 인식'으로,

행동적 요소는 '노인에 대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좀 더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태도의 하위요소간의 관계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인지와 이미지를 혼합하여 '노인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는 것은, 첫째, 태도의 인지적인 측면에서 정서적인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Palmore(1988)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둘째, 노인에 대한 인지와 이미지를 측정하는 방법상의 차이가 다소 있으나 그 문항의 내용이 대동소이하야 이 둘을 구별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노인의 이미지, 인지와 태도를 서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태도'라는 좀 더 포괄적인 용어로 선행연구들을 종합, 분석하고자 한다.

1950년대 초반의 연구들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즉, 젊은이들은 노인에 대해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노인을 매력 없고, 무능력하고 신체적으로 약하고 성적으로 무관심하고 어리석으며 소외되었고 생산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Tuckman & Lorge, 1954; Mctavish, 1971; Crandall, 1980).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이후 척도가 다양화되면서 여러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연구결과가 증가하였다. 세대간 연구에서는 노인응답자에 비해 젊은 세대의 부정적인 태도가 감소되었으며, 노인 응답자들도 자신이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나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강조되었다(이선자, 1989).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노인에 대한 젊은 세대의 태도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연구결과는 서구의 경향과 맥을 같이 한다. 즉, 초창기의 연구들(조명희, 1974; 차용은, 1981; 윤진, 조석미, 1982)은 주로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여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강조하였으나, 90년대의 이후의 연구들(이은미, 1990; 신귀연, 1995)은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청소년의 성별, 연령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청소년이 경험하는 노인들과의 접촉의 정도나 관계의 질(친밀감) 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져, 노인에 대한 태도가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는 않지만 청소년의 성별과 노인에 대한 태도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노인에 대하여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조명희, 1974; 차용은, 1980; 신귀연, 1995)와 아동기와 청년기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노인에게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이선자, 1989; Hoffman, 1980)로 대별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에 대한 태도가 성역할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노인에 태도가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연령 역시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아동보다 청소년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신귀연, 1995; 이미정, 1996; 이선자, 1989; 조명희, 1987). 노인에 대한 태도를 청소년의 연령별로 조사한 이선자(1989)의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전 연령층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나,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은 새로운 세계와의 적응을 위한 정신적, 신체적 성숙과 함께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려는 독립적인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이들은 같은 연령층의 또래집단과의 친밀도와 동일시의 특성을 강하게 갖고 있어 다른 세대와의 배타적 관계를 유지하게 되므로 아동보다 청소년들이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의 성과 연령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더불어, 청소년과 노인간의 접촉의 정도나 관계의 질 역시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밝혀지고 있다. 먼저, 노인과 동거경험과의 관련성을 보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임장순(1979)의 연구와 중·고등학생을 함께 표집한 김광숙(1987)의 연구에서는 노인과 동거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거의 모든 측면에서 노인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서울시내 남녀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과 동거경험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임인혜(1986)의 연구에서는 노인과 동거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노인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은미(1999)와 이미정(1996)의 연구에서는 노인과 동거경험이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노인과 동거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일관된 경향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과의 동거경험이나 단순한 접촉보다는 청소년과 노인의 접촉이나 관계의 질적인 측면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조부모와 매일 혹은 매주 방문하여 친근히 접촉한 응답자들은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보다 노인들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sencranz & McNevin 1969 ; 김혜경, 1997 재인용). 또한 청소년과 조부모의 친밀감과 같은 관계의 질적인 측면이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혜경, 1997 ; 신귀연, 1995 ; Cartestenses, Mason & Caldwell, 1982 ; Harshomo & Manaster, 1982).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의 결과들이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는 이유로는 우선 연구의 대상자 선정에서 청소년을 대표할 만한 수의 표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인의 태도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측정방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성

과 학년이 고루 분포된 대표성 있는 자료로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태도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태도'의 내현적인 반응은 '태도'의 외현적인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Fishbein(1967)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노인에 대한 인식'은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이 합해진 것으로, '노인에 대한 행동'은 행동적 측면으로 규정하고, 노인에 대한 인식이 노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이시형, 이재연, 정선아, 정현희(1999)의 '노인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및 부양의식' 연구의 데이터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1999년 서울시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들이다. 표본의 선정은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를 강북동, 강북서, 강남동, 강남서, 8학군의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내에서 임의로 20개의 학교를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조사자가 각 학교를 방문하고, 학급별로 교사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기간은 1999년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학생들 스스로 질문지에 직접 답하도록 하였다.

전체 1,477명의 학생 중, 남학생이 737명(50.8%), 여학생이 715명(49.2%)이며, 초등학교 502명(34.1%), 중학교 517명(35.1%), 고등학교 453명(30.8%)으로 남녀와 학년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가정경제수준은 상류층(1), 중상류층(2), 중류층(3), 중하류층(4), 하류층(5)으로 기입하게 하였는데, 중류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8.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으며, 중상류층, 중하류층, 상류층, 하류층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형제순위를 보면 기타가 484명(45.4%)로 가장 많고, 장남, 장녀, 남아 외동이, 여아 외동이 순이다.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노인에 대한 인식 조사 도구는 일반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망과 이미지, 편견을 내용으로 2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노인에 대한 인식은 Kogan(1961)이 제작한 "Old People Scale"의 20개 문항중에서 긍정적인 7문항만을 선정하였고, 노인에 대한 전망과 이미지는 이선자(1989)가 제작한 "노인에 대한 전망과 이미지" 척도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노인에 대한 편견은 Palmore(1988)의 "The Facts on Aging Quiz"의 문항 가운데 10문항을 선택하여 조사도구의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FAQs(The Facts on Aging Quiz)는 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의 조합을 이루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FAQ의 True-False 문항(전체 25문항)에서 심리적인 요소만을 다룬 10가지 요소를 선택하여 노인에 대한 심리적 측면에 대한 편견만을 측정하였다.

노인에 대한 인식 27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노인관과 부정적인 노인관(노인에 대한 편견)으로 나뉘어 졌으며, 요인부하량 값이 .40이상인 문항들을 선별하였다. 긍정적인 노인관은 7문항으로 '노인들은 대부분 깨끗하다, 노인들은 푸근하고 따뜻한 감을 준다' 등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Cronbach $\alpha = .65$). 부정적인 노인관은 12문항이며 노인에 대한 편견으로 '노인들은 65세가 넘으면 치매증상을 보인다, 노인들은 항상 불행하다고 느낀다' 등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Cronbach $\alpha = .66$).

노인에 대한 행동은 청소년들이 평소에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는데, 예를 들면 '노인들 앞에서 행동을 조심한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노인들 보면 도와드린다' 등 총 5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이 의미한다(Cronbach $\alpha = .67$).

조부모와의 접촉의 정도와 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조부모와의 현재동거여부, 조부모와의 거

리, 접촉정도, 친밀감을 측정하였다. 이 변수들은 각 조부모(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 별로 각각 측정하였으나, 분석에서는 하나의 변인으로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이처럼 분석에서 하나의 변수로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체 조부모에 대한 평균값이 산출되게 되어 예를 들면, 친조부모와는 접촉이 빈번하나 외조부모와는 접촉이 거의 없는 청소년의 조부모와의 접촉의 정도 및 관계의 질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와의 접촉이 중간수준인 청소년의 조부모와의 접촉의 정도 및 관계의 질이 같은 수준이 된다는 제한점을 안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조부모와의 접촉의 정도 및 관계의 질을 통제된 상태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소들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변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한점을 안고 있음을 밝힌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일반적 경향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행동과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이다. 노인에 대한 행동은 4점만점에 2.91, 긍정적 노인관은 4점만점에 2.83, 부정적 노인관은 1.94로 비교적 긍정적인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조부모와의 친밀감은 5점 만점에 4.05점으로 일반노인에 대한 인식에 비해 높은 친밀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이선자(1989), 이은미(1990), 신귀연(1995)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조부모와의 접촉정도를 청소년과 조부모와의 과거 동거경험 및 현재동거여부, 청소년의 조부모에 대한 전화 및 방문횟수, 조부모의 전화 및 방문횟수, 조부모와의 거리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조부모와 과거에 동거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20.1%로 낮게 나타났으며, 현재 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20.5%,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79.5%로 현재 동거하는 경우도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은 조부모에게 거의 전화하지 않는다(46.2%)

며, 년 1-2회가 24.6%로 나타났고, 조부모를 방문하는 정도는 주 1-2회가 45.1%, 월 1-3회가 35.9%로 나타나, 전화보다는 방문을 자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부모는 청소년 손주에게 년 1-2회 전화하는 경우가 31%, 월 1-3회는 28.3%이며, 청소년 손주를 방문하는 빈도는 거의 하지 않는다(44%, 년 1-2회가 41.4%로 조부모가 청소년을 방문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조부모를 더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와 청소년이 사는 지역간의 거리는 걸어서 가는 거리의 경우가 24.1%, 차로 30분 이내가 32.3%로 과반수가 넘는 청소년이 조부모와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성별, 학년, 경제수준, 출생순위), 조부모와의 현재동거여부, 조부모와의 접촉정도, 친밀감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기 위해 t-test, 변량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표 1〉-〈표 3〉).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성에 따라 부정적 노인관과 노인에 대한 행동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부정적 노인관의 점수와 노인에 대한 행동점수가 높아, 남자청소년들이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

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노인에 대한 행동은 공손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년에 따라서도 노인에 대한 인식, 노인에 대한 행동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조부모를 더 친밀하게 느끼고, 노인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이어서 선행연구(신귀연, 1995 ; 이미정, 1996; 이선자, 1989 ; 조명희, 1987)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노인의 인식에 있어서도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노인관 점수와 부정적인 노인관 점수 모두가 높다.

한편, 청소년의 가정경제수준이나 형제순위, 현재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노인에 대한 인식과 노인에 대한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과 노인의 접촉정도와 노인에 대한 인식, 노인에 대한 행동과의 관련성을 알아 본 결과, 청소년이 조부모에게 전화를 자주 하고, 조부모가 청소년에게 전화를 자주하고 자주 방문할수록, 청소년이 조부모를 친밀하게 느낄수록 노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노인에 대한 행동도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조부모를 자주 방문할수록 노인에 대한 인식과 노인에 대한 행동이

〈표 1〉 청소년의 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인식과 노인에 대한 행동

〈N= 1,477〉

	긍정적 노인관		부정적노인관		노인에 대한 행동	
	평균(SD)	t 값	평균(SD)	t 값	평균(SD)	t 값
남자 청소년	2.98(.46)	.565	1.98(.45)	3.78***	2.95(.52)	2.30*
여자 청소년	2.97(.43)		1.89(.41)		2.88(.47)	

* p<.05, ** P<.01, *** p<.001

〈표 2〉 청소년의 학년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인식과 노인에 대한 행동

〈N= 1,477〉

	긍정적 노인관			부정적노인관			노인에 대한 행동		
	평균(SD)	Sche-ffer	F 값	평균(SD)	Sche-ffer	F 값	평균(SD)	Sche-ffer	F 값
초	3.05(.43)	a	127.62***	2.05(.46)	a	31.93***	3.10(.53)	a	58.39***
중	2.80(.42)	b		1.93(.44)	b		2.84(.47)	b	
고	2.63(.37)	c		1.82(.36)	c		2.79(.41)	b	

* p<.05, ** P<.01, *** p<.001

〈표 3〉 청소년과 조부모와의 접촉의 정도 및 관계의 질과, 노인에 대한 인식 및 노인에 대한 행동과의 상관관계

〈N=1,477〉

	긍정적 노인관	부정적노인관	노인에 대한 행동
청소년 전화	.291***	.075*	.280***
청소년 방문	-.122***	-.010	-.163***
조부모 전화	.188***	.009	.123***
조부모 방문	.073*	.004	.122***
청-조부모 거리	.004	.033	.049
청-조부모 친밀도	.349***	.019	.253***

* p<.05, ** P<.01, *** p<.001

부정적이며, 청소년이 조부모에게 자주 전화할수록 부정적 노인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조부모와의 지역적 거리는 노인에 대한 인식이나 노인에 대한 행동과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이처럼, 청소년의 성, 학년, 청소년과 조부모와의 접촉의 정도 및 관계의 질과 긍정적 노인관, 부정적 노인관, 노인에 대한 행동이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행동에 미치는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2.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과의 관계

1단계에서는 청소년의 성과, 학년, 2단계에서는 조부모와의 현재동거여부, 조부모와의 접촉정도, 3단계에서는 조부모와의 관계의 질(친밀감), 4단계에서는 노인에 대한 인식 변수를 각각 첨가하여 각 변수가 노인에 대한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동시에, 여러 선행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온 청소년의 성과, 학년, 조부모와의 동거여부, 조부모와의 접촉의 정도와 관계의 질과 같은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과 노인에 대한 행동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표 4).

청소년의 성과 학년은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행동을 6.9% 설명하며, 청소년과 조부모와의 접촉의 정도는 전체 설명력을 5.0 % 증가시켰고, 관계의 질은 3.1%를, 그리고 노인에 대한 인식은 7.3%를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에 포함된 10개의 변수는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행동을 22.3% 설명하며, 10개의 변수 중 긍정적 노인관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크다. 4번째 모델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청소년이 조부모에게 전화를 자주 걸수록, 조부모를 친밀하게 여길수록, 노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노인에 대한 행동이 좀 더 긍정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간의 관계를 4 단계가 모두 포함된 4번째 모델을 중심으로 보면, 노인에 대한 인식 중 긍정적 노인관이 노인에 대한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노인에 대한 행동이 좀 더 공손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나, 접촉의 정도, 관계의 질보다는, 노인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로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표 4).

한편, 노인에 대한 인식을 통제했을 때, 조부모와의 친밀감이 노인에 대한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beta = .185$, $p < .001$ 에서 $\beta = .111$, $p < .05$ 로 감소), 조부모와의 친밀감과 노인에 대한 행동간의 관계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이 부분적인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성이나, 동거여부, 청소년의 조부모에 대한 방문정도, 조부모의 전화정도, 조부모의 방문정

〈표 4〉 노인에 대한 인식과 노인에 대한 행동간의 관계

〈N=1447〉

	노인에 대한 행동			
	B (β)	B (β)	B (β)	B (β)
1단계: 배경변인				
성 ¹⁾	.070 (.070)	.073(.074)	.050(.050)	.041(.042)
학년	-.158 (-.257)***	-.114(-.186)***	-.100(-.163)**	-.037(-.060)
2단계: 청-조 접촉정도				
동거여부		-.036(-.030)	-.033(-.027)	-.024(-.020)
청전화		.099(.224)***	.093(.209)***	.073(.163)***
청방문		-.032(-.048)	-.024(-.037)	-.029(-.044)
조전화		-.028(-.059)	-.047(-.098)	-.045(-.094)
조방문		.026(.041)	.035(.055)	.349(.054)
3단계: 청-조 관계의 질				
친밀감			.116(.185)***	.069(.111)*
4단계: 노인에 대한 인식				
긍정적 노인관				.334 (.299)***
부정적 노인관				.076(.066)
회귀상수	2.189	2.038	2.156	1.595
R ² 변화량	.069***	.050***	.031***	0.73***
R ²	.069***	.119***	.150***	.223***

* p<.05, ** P<.01, *** p<.001

주: 1) 남=1, 여=0

도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행동과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주요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행동과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이며, 조부모의 친밀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청소년과 조부모간의 접촉의 정도는 전화빈도에 비해 방문빈도가 더 높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성세대의 우려와는 달리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행동과 인식이 긍정적임을 나타내주고 있어 청소년세대가 성인에 대하여 편견을 느끼는 만큼 성인 역시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남자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그리고 초등학교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긍정적 노인관의

점수와 부정적 노인관의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노인에 대한 인식을 단순히 긍정적인 측면이나 편견의 측면에서만 측정하기보다는 본 연구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긍정적 노인관과 부정적 노인관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난 것은 남자청소년과 초등학교이, 여자청소년이나 중·고등학교에 비해 노인에 대한 인식이 올바른 지식에 기반하기 보다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게 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 대한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줄 수 있는 교육과 더불어 대중매체를 통해 건강하고 긍정적인 노인들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가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의 성과, 학년, 청소년과 조부모의 접촉정도와 관계의 질, 노인에 대한 인식 등,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청소년이 조부모에게 전화를 자주 걸수록, 조부모를 친밀하게 여길수록, 노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노인에 대한 행동이 좀 더 긍정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세대와의 긍정적인 접촉경험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인식을 경감시키며, 조부모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일반적인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김혜경(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인식과 노인에 대한 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할 결과,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노인과의 접촉정도, 관계의 질, 노인에 대한 인식 중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이 노인에 대한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행동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변수로 거론되어 온 친밀감(관계의 질) 보다, 노인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나타난 것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이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함으로써, 미래의 부양세대인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개입에서 중요한 변수를 간과했음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다섯째, 조부모와의 친밀감과 노인에 대한 행동간의 관계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이 부분적인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부모와 친밀한 경우에도 노인에 대한 행동이 긍정적일 수 있으나,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서도 노인에 대한 행동이 바뀐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조부모나 친밀한 노인과의 접촉,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노인과의 접촉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Porter & O'Conner, 1978)하며,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교육할 수 있는 교과내용과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이고 교육적인 개입이 필요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성과 학년이 고루 분포된 대표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였고,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과 관한 문항들의 수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척도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 접수일 : 2001년 9월 14일

□ 심사완료일 : 2001년 11월 13일

【참 고 문 헌】

- 김광숙(1987). 청소년의 노인관에 대한 조사연구-서울시내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1997).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조부모와의 세대차이에 관한 연구: 미국 이민 가족내의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간의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65-79.
- 박경란(1994). 부모-조부모 관계의 질이 청소년기 손자녀-친조부모간의 유대관계에 미치는 영향, 부산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4(2), 74-89.
- 백문화 · 조병은(1992). 부모 및 조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동거와 비동거 가족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0(2), 219-236.
- 성규탁(1995). 한국인의 효행의지와 연령층들간의 차이, 한국노년학 15(1), 1-14.
- 신귀연(1995).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노인 이미지.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 양춘(1984). 청소년문제와 노인문제, 서울: 이우출판사.
- 윤진(1985). 성인 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윤진 · 조석미(1982). 경산노인과 노화사실 인지 척도의 구성연구. 한국노년학 2, 5-15.
- 이미정(1996).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자(1989). 연령단계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이시형 · 이재현 · 정선아 · 정현희 (1999). 노인에 대

- 한 청소년의 태도 및 부양의식,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연구보고서 제 99-2호.
- 이은미(1990). 중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 텔레비전의 드라마와 코미디물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 임인혜(1986). 한국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임장순(1979). 노인에 대한 중학생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조명희(1974). 노인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의 태도 분석.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차용은(1981). 노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 전주대학 논문집 9(2), 12-23.
- 통계청(1996). 주요통계지표해설.
- 한정란(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5-128.
- Austin D. R.(1985). Attitudes toward old people : A hierarchical study. *The Gerontologist*, 25(4), 431-434.
- Cartestenses, L., Mason, S. E., & Caldwell, E. C. (1982).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 international techniques for changes. *Educational Gerontology*, 8, 292-301.
- Crandall, R. C.(1980). *Gerontology:A Behavioral Science Approach*, Massachusetts:Addison Wesley Publishing Co.
- Fishbein, M.(1967). *Reading on attitude theory and measurement*. New York:John Wiley and Sons. Inc.
- Hartshome, G. O., & Manaster, J. M.(1982). The relationship with grandparents:contact, importance, role concep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5(3), 233-245.
- Hoffman, E.(1979-1980). Young adults' relations with their grandpparents:An exploratory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0(3), 299-310.
- Kogan, N.(1961). Attitude toward old people: The development of a scale and an examination of correlat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 44-54.
- McTavish, D. G.(1971). Perceptions of old people: A review of research methodologies and findings. *The Gerontologist*, 11(4), 90-101.
- Palmore, E. B.(1988). *The facts on aging quiz, A handbook of uses and results*, Springer publishing company, New York.
- Seefeldt C., Jantz R. K., Galper A., & Serock K. (1977). Using Pictures to explore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Gerontologist*, 17(6), 506-512.
- Tuckman, J., & Lorge, I.(1953). Attitudes toward old peopl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7, 249-260.
- Weinberger, L. E., & Millham, J.(1975). A multidimensional, multiple method analysis of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0 (3), 343-348.